

보 도 자 료

	◆ 2022. 10. 12. (수) 배포
	◆ 총 4쪽 (본문 2쪽, 첨부 2쪽)
	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강민구 문화홍보실장	☎ 032-770-8631

극지연구소, GS리테일과 ‘기후위기 대응’ 손 잡아

극지연-GS리테일 10.11.[화]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 체결

- 극지연구소가 GS리테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종다양성 보존 활동에 나선다.
- 극지연구소와 GS리테일은 10월 11일 (화)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업무협약 (MOU)을 맺고,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종다양성 보존활동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.
- 이날 협약식에는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에 서명했다.
- 극지연구소는 북극다산과학기지와 남극세종·장보고과학기지,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 우수한 극지 연구 인프라를 갖춘 해양수산부 산하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.
- 극지연구소는 올해 다산과학기지 설립 20주년을 맞아 더 많은 국민들에게 북극발 기후위기 대응 등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온·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GS리테일과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.

- GS리테일은 최근 태풍,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멸종위기 생물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보존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약에 나서게 됐다.
- 극지연구소와 GS리테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기후 위기 대응 및 생물종다양성 보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기로 약속했다.
- 편의점 GS25에서는 첫번째 공동캠페인으로 11월부터 시행되는 편의점 일회용봉투 사용 중단에 대응하고자 공동 제작한 종이쇼핑백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. 쇼핑백에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이용 고객에게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. 또한, 슈퍼 GS더프레시에서는 11월부터 동일한 디자인으로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을 선보일 예정이다.
- 그 밖에 홈쇼핑, GS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.
-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남극과 북극에서 연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과학자들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에 GS리테일과 손을 잡게 됐다”며, “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GS리테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종다양성 보존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1. 극지연구소-GS리테일 업무협약식 (10.11.)



